

# 하나님은 말씀운동을 원하신다

히브리서 4:12

정운돈 목사님

## 서론 : 나의 말씀

어려움이 왔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전에는 성경을 암송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지, 나의 레마로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인가? 사건이 터졌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에게서 나의 신앙고백 다섯 구절이 있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화다.

(1) 나는 원래 혈기가 심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어릴 때 너무 많았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것을 참지 않고 바로 터트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잠12:16의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도 그것을 지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난다.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훈계의 말은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받아들이는 자세로 변화되게 되었다. 나에게 이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그렇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이 속에서 나에게 훈계가 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찾아내게 되었다. 이러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집안이 계속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약1:2였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서울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목포로 내려가게 되었다. 말 안 듣는 고아 수백명과 씨름을 해야 했다. 대학원 공부를 잘 하고 왔는데 다시 중증장애인과 10년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속 문제가 오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3) 대학 때 집중해서 붙잡게 된 말씀이 요3:3였다. 점심시간마다 성경공부를 할 때 매일 들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거듭남이 요3:16이라는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4) 대학에 다닐 때 모든 유혹과 정욕의 소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런 유혹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이 떠올랐다. 시119:90이다.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5) 다락방에 들어오고 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지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 복지와 선교와 NGO를 위해서 붙잡은 말씀이 잠11:24-25이다. 과도히 아낀다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그렇다. 믿는 자가 부요해지는 방법이 흠어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복지선교사역을 두고 깨닫고 붙잡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 메시지가 내 마음 속에 박혔는데 이렇게 응답이 온 것이다. 다른 사람을 겨우 도우는 것이 아니라, 윤곽하게 하는 도전을 하게 되었다.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말씀운동은 가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응답으로 와야 한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붙잡고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21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교인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현장복음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봐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대중 알면 안 된다.

## 1. 목표

- (1)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미 예비하셨다(히4:12).
- (2)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행2:17, 요일2:28). 3.오늘이 삶 속으로, 사업과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오는 것이다.
- (3)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토록 하셨다(계1:3). 성령충만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 (4)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요1:1~2).
- (5)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히11:3).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변화된다. 로마서 16장처럼 산업까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연약한 내가 주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증인으로 모두가 서시기 바란다. 이것이 말씀운동을 해야 할 이유요, 우리의 목표다.

## 2.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

- (1) 벵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은 성경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

람의 말이 아니다. 명언이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교훈 책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2) 고전2:14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게 된다. 어떤 책을 봐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다르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3) 요3:3, 5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 3.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할 이유

말씀운동을 왜 해야 하는가? 전하든지, 배우든지 해야 한다. 이게 말씀운동이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서다. 현장에 가면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전하면 내가 먼저 힘을 얻게 된다.

(1)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히5:13). 성장해야 한다.

(2)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된다(빌2:16).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 기준이 안 되면 열심히 뛰는데 헛걸음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3)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요일2:5).

(4)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는 말씀이다(엡6:17).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사단을 박살내는 길이다. 갈2:20,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길이다.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충만의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5)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온다(행2:17).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 미래가 보인다. 예언 안 해도 된다. 이만큼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 4.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1) 말씀의 세 가지 특징 (벧전1:23)

①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② 항상 있는 말씀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③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요1:12, 요일5:11-13,

고후5:17).

(2)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어떻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가? (요8:32)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종살이, 노예생활 하는데,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해방된 것이다. 가난, 질병, 미움, 원수, 경제적인 문제, 전부 복음을 바라보니까 해결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다.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다섯 분야가 있다. (히4:12)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어야 한다. 마음, 영혼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찌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이 된다. 혼, 영, 마음, 생각, 뜻, 이 다섯 가지다. 우리의 영이, 영적 상태, 체질을 도려내어야 한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많은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말씀운동이다.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 나를 지켜주는 말씀을 찾아보라. 내가 증인이 되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운동을 그렇게 해야 한다.

### 결론 : 어떻게 말씀운동을 할 것인가?

(1) 구역을 통해서 말씀운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구역 심방을 하고 있다.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고 성경공부를 하지는 사람, 몰래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은 전부 신천지다. 위험한 시대다. 성경 지식이 없으니 까 다 넘어가 버린다. 구역에서 영적인 것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출석체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교인, 가정 사정을 다 알고 기도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2) 다락방, 미션 홈, 지교회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3) 성경 66권 말씀 전체의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면 균형이 안 맞게 된다. 새가족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결론만 나니까 지식이 안 느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적으로, 전도 선교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4) 이런 말씀운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교재들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핵심은 그리스도요, 목표는 전도, 선교다.

(5) 그래서 지속하고 더 큰 응답을 받으려면, 각인, 뿌리, 체질과 같은 21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다 치유다.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행1:1, 3, 8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현장의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성경 66권의 핵심과 21가지 열쇠를 가지고 말씀운동에 승리해서, 전도, 선교로 교회 살리고 세상 흑암문화를 무너뜨리는 나실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